

# 선전문로서의 번역, 전쟁터로서의 여성

-북한 대외홍보지 『새조선(新朝鮮)』에 게재된  
여성영웅서사의 번역을 중심으로

등천(鄧倩)

중국해양대학 전임 강사

목차

- 1 들어가며: 전쟁과 여성영웅의 번역
- 2 「조옥희」의 다시 쓰기: 여성성을 거세당한 여자 유격대원
- 3 「불타는 섬」의 다시 쓰기: 내면세계가 은폐된 여자 통신수
- 4 나가며: 여성영웅의 ‘죽음’과 ‘환생’

이 논문은 2022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2-OLU-2250001).

한국전쟁 기간 동안 북한의 대외홍보지 『새조선(新朝鮮)』에서 일련의 소설을 번역함으로써 전장(戰場)에서 헌신적으로 싸운 영웅 군상을 중국 독자에게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여성영웅은 이데올로기와 미학의 충돌, 거대담론과 개인담론의 길항관계를 교묘하게 드러내는 표상으로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임순득의 「조옥희」와 황건의 「불타는 섬」에 주목하여 두 소설이 중국어로 번역된 과정에서 수반된 여성 인물의 변용과 전용 양상을 젠더적 독법으로 검토했다. 임순득의 「조옥희」는 북한 최초의 여성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조옥희의 일대기를 문학적으로 재현한 실화문학이다.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옥희가 유격대원으로 활동한 집단서사를 최대한 충실하게 재현한 반면 가족 회상으로 구성된 개인사를 대폭 삭제했다. 이에 따라 조옥희는 여성성이 넘치는 한 인간으로부터 조국, 인민과 수령에 대한 사랑으로 무장된 탈성화된 ‘영웅’으로 변신되었다. 황건의 「불타는 섬」은 월미도를 사수하는 전투에서 해안포 중대장 이대훈과 여자 통신수 김명희가 최후의 시간을 같이 보낸 이야기를 서사화한 소설이다.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김명희의 내면세계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남녀 주인공의 ‘고귀한 사랑’을 깨끗이 여과시켜서 ‘뜨거운 애국심’과 ‘승고한 혁명정신’으로 충만한 해안포 대원들의 영웅적인 모습만 중국 독자에게 전달했다.

「조옥희」와 「불타는 섬」은 여성영웅의 죽음을 재현한 희생담이다. 여자 유격대원 조옥희와 통신수 김명희는 비록 소설 속에서는 생을 마쳤지만,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을 통해 중국 독자와 만나게 되고 중국 문학장에서 다시 ‘환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환생’에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다. 여성영웅은 개별적 자아를 버리고 집단적 주체, 즉 탈성화된 주체에 합류되어야만 비로소 번역장으로 진입하는 입장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외선전(對外宣傳)을 목표로 한 북한의 번역장에 깔려있는 가부장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국문핵심어: 『새조선(新朝鮮)』, 한국전쟁, 번역, 여성영웅, 「조옥희」, 「불타는 섬」

## 1 들어가며: 전쟁과 여성영웅의 번역

본고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북한의 대외홍보 기관지 『새조선(新朝鮮)』에 게재된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번역 양상을 젠더적 독법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대외선전(對外宣傳)을 목표로 한 북한의 번역장에서 여성이 수행한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육박전을 벌이고 생사를 다투었던 전쟁터 외에 여러 ‘총성 없는 전쟁터’도 존재했다. 전시(戰時) 상황에 펼쳐진 북한의 문학장과 번역장은 바로 그 대표적인 공간이다. 당시 북한의 종군작가와 후방작가들은 다양한 전쟁서사를 창작하여 국내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선전선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외국어에 능통한 번역자들은 이런 전쟁서사를 선정하여 외국어로 번역함으로써 외국 독자를 대상으로 대외선전 임무를 수행했다. 이처럼 1950년대 초반 북한의 문학장과 번역장은 긴밀한 연동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번역장에서 대외선전 임무를 담당할 매체는 바로 『새조선』이라는 잡지이다.

『새조선』은 “세계 인민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며 그들의 동정과 지지를 쟁취”하기 위해 발행된 대외선전용 미디어다.<sup>1</sup> 1950년 1월 러시아판 『새조선(Новая Корея)』이 먼저 출간되었으며, 1951년 1월부터 중국어판 『새조선(新朝鮮)』과 영문판 『New Korea』가 동시에 출간되었다.<sup>2</sup>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러시아판, 중국어판, 영어판 『새조선』은 간행 언어가 다를 뿐 게재 내용은 동일하다. 중국어판 『새조선(新朝鮮)』은 1951년 12월호까지 발행된 후 전쟁으로 휴간되었다가 1952년 8월 다시 복간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간행되었는데 1975년

- 1 1989년 12월 북한 외국문출판사 창사 40주년을 즈음하여 중국어판 『금일조선(今日朝鮮)』에서는 신조선사(외국문출판사의 전신)의 창립과 『새조선』 창간 과정을 밝힌 바 있다. 이 글에 의하면 1949년 12월 4일 김일성의 지시 아래 “세계 인민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며 그들의 동정과 지지를 쟁취”하기 위해 신조선사가 창립된 것이다. 「以更好更多的出版物奉獻全世界：外文綜合出版社建社四十周年的回顧與展望」, 『今日朝鮮』 12月號, 1989.12, 40쪽.
- 2 다중 판본의 잡지명을 구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모든 판본을 통칭할 때 『새조선』으로 표기하고, 중국어 판본을 『새조선(新朝鮮)』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금일조선(今日朝鮮)』으로 제호를 변경하여 간행하다가 2021년 3월호에 중단되었다. 1950년대부터 중국어판 『새조선(新朝鮮)』은 기증·교환 등의 방식으로 중국 주요 기관 및 대학 도서관에 배포되어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에게 널리 읽혔고 중국 민중이 ‘항미원조(抗美援朝)’를 인식하고 상상하는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sup>3</sup>

동시대 발행되었던 북한 매체와 비교해 볼 때, 『새조선』의 가장 큰 특징은 국문판 없이 외국어로만 간행된 대외선전용 잡지라는 점이다. 『새조선』에 실린 대부분의 원고는 『로동신문』, 『민주조선』, 『문학예술』, 『조선문학』 등 당시 북한의 주요 매체에 게재되었던 글을 전재(轉載)해서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적절한 작품 선정과 번역을 통해 본국 작품에 내포된 ‘내부적 결속력’을 ‘외부적 연대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sup>4</sup>가 직면한 가장 큰 임무라 할 수 있다.

『새조선』의 또 다른 특징은 문예지 지면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1951년 1-12월에 간행된 중국어판 『새조선(新朝鮮)』은 모두 58면으로 제한되어 있고, 1952년 8월부터 다시 복간된 『새조선(新朝鮮)』은 1953년 12월호까지 모두 63면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지도자 강화, 정론, 신문기사 등 비문학적인 내용은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문학작품을 게재할 수 있는 ‘문예란’은 10면도 채 되지 않았다. 더 세분하자면 시가는 1-2면, 소설은 적으면 2면, 많아야 8면을 차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충실한 직역을 수행하지 못하고 대폭적인 침삭을 통해 원작에 대한 ‘다시 쓰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침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조선(新朝鮮)』은 도대체 어떤 작품들을 선정했으며, 또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선택하고 어떤 내용을 삭제했을까? 필자의 통계에 의하면 1951년 1월부터 1953년 12월까지 중국어판 『새조선(新朝鮮)』은

---

3 등천,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대(對)중국 번역 기획: 북한의 대외 홍보 기관지 『새조선(新朝鮮)』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79호, 현대문학연구회, 2023, 164-165쪽.

4 『새조선(新朝鮮)』의 번역 작업은 한 사람에게 의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문고 선정 및 편집, 번역 및 윤색, 교정 등 차례를 거쳐 여러 사람의 협력에 의하여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새조선(新朝鮮)』의 편집진과 번역진을 통틀어서 ‘번역주체’라고 규정한다. 등천, 위의 글, 171-175쪽 참조.

朝鮮)에는 총 32편의 시가 및 24편의 소설이 기획 번역되어 전쟁문학의 이례적인 번역 계보를 구축했다.<sup>5</sup> 이 작품들은 크게 인민군의 전투 과정에 집중한 영웅서사, 북한 인민을 형상화한 수난·저항서사, 조소·조중의 친선 관계를 다룬 우호서사로 유형화할 수 있다.<sup>6</sup> 소설 장르를 보면 전장(戰場)에서 헌신적으로 싸운 각종 전사들의 이야기를 서사화하는 영웅서사는 15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수많은 전쟁서사에서 15편의 영웅서사를 선정하고 번역함으로써 해안포 사수, 전투기 비행사, 공병대 분대장, 기관총 사수, 전화수, 나팔수를 망라한 남성 영웅과 간호병, 여자 통신수, 여자 유격대원을 비롯한 여성 영웅을 중국 독자에게 전면적으로 보여주었다. 『새조선(新朝鮮)』에서 여성영웅이 나타난 영웅서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새조선(新朝鮮)』에 선정된 영웅서사에 나타난 여성영웅(1951.1-1953.12)

권호	작품명	저자 및 저본	주요 인물	주요 내용
1951.3	可愛的人	현덕, 「아름다운 사람들」	전투기 비행사, 여자 간호병	전투-남성영웅 부상-치료 -(남녀주인공 애정담)-전선 복귀

- 5 1951년 창간호부터 1953년 12월호까지 『새조선(新朝鮮)』의 겉표지에 ‘해방탑’ 사진을 계속 사용하다가 1953년 1월호부터 표지에 다양한 그림과 사진을 삽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1953년 12월을 분수령으로 『새조선(新朝鮮)』은 ‘조국해방전쟁’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의 번역 작업은 일단락을 짓고 번역의 중점은 전후 ‘사회주의건설’로 이행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51년 1월부터 1953년 12월까지 『새조선(新朝鮮)』에 게재된 문학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한정 짓는다.
- 6 영웅서사(15편): 한설야의 「金斗燮(김두섭)」 및 「黃草嶺(황초령)」, 이기영의 「復仇의記錄(복수의 기록)」, 황건의 「燃燒著의島(불타는 섬)」 및 「他的歸路(그가 돌아간 길)」, 김만선의 「黨證(당증)」, 현덕의 「可愛的人(아름다운 사람들)」, 박웅걸의 「特等電話員(상급전화수)」, 윤세중의 「兩個戰士(구대원과 신대원)」, 윤시철의 「司號員의功勳(사팔수의 공훈)」, 조정국의 「火花(불꽃)」, 임순득의 「趙玉姬(조옥희)」, 김영석의 「蘋果樹(사과나무)」, 신룡전의 「海岸炮(해안포)」, 이상현의 「高壓線(고압선)」
- 인민 수난·저항서사(7편): 한설야의 「狼(승냥이)」, 이복명의 「報仇(악마)」, 최명익의 「機師(기관사)」, 박웅걸의 「渡口(나루터)」, 김형교의 「趙家嶺索道(조가령삭도)」, 박찬모의 「耕田(밭갈이)」, 변희근의 「幸福的人們(행복한 사람들)」
- 조중(朝中) 우호서사(2편): 이태준의 「高貴的人們(고귀한 사람들)」, 권정룡의 「渡江(도강)」

1951.12	趙玉姬	임순득, 「조옥희」 『문학예술』 1951.6	여자 유격대원, 남성 동무	유격대 가담-전투-체포 -고문당함-총살당함
1952.9	黃草嶺 (節譯)	한설야, 「황초령」 『문학예술』 1952.6	군용차 기사, 여자 간호병, 군 의	전투-남성영웅 부상 -치료-전선 복귀
1952.10	燃燒著的 孤島	황건, 「불타는 섬」 『로동신문』 1952.1.20.-21	해안포 분대장, 여자 통신수	전투-(남녀주인공 애정담) -전원 희생
1953.3	蘋果樹	김영석, 「사과나무」 『문학예술』 1953.1	기관총 사수, 여자 간호병	전투-남성영웅 부상-치료 -(남녀주인공 애정담)-전선 복귀
1953.9	高壓線	이상현, 「고압선」 『문학예술』 1953.8	영예군인, 옛 친구, 옛 애인	영예군인 귀향-노동현장 복귀 -옛 친구, 애인과 오해-화해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새조선(新朝鮮)』에 선정된 영웅서사에 나타난 여성 영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남성영웅의 신체적 상처를 치유하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와주는 간호사, 즉 치유자 역할이다. 예컨대 한설야의 「황초령」에서 부상당한 군용차 기사를 정성껏 간호해준 간호병 복실, 현덕의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부상당한 비행사를 간호해 준 간호병 안양, 그리고 김영석의 「사과나무」에서 부상당한 사격수를 간호해 준 간호병 현숙을 들 수 있다. 또한 「고압선」에서 영예군인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일조한 여공 원희도 치유자 역할로 볼 수 있다. 둘째, 여성작가 임순득의 「조옥희」처럼 유격대원으로서 미군과 맞서 싸우는 여전사 역할이다. 셋째, 황건의 「불타는 섬」처럼 전장에서 남성 영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반자 역할이다.<sup>7</sup>

『새조선(新朝鮮)』 문예란에 선정된 남성영웅에 비해 여성영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대외선전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쟁에서 온갖 수난을 겪은 여성은 적군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전쟁의 정의성

7 『새조선(新朝鮮)』에 선정된 인민 수난·저항서사와 조중(朝中) 우호서사에도 여성인물들이 종종 등장한다. 전자의 경우 여성은 적군에게 학살, 착취,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 나타나고, 후자의 경우 북한 여성은 중국 지원군을 간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구원자로 등장하곤 한다. 여성 구원자의 변역은 조중친선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단독 논문을 통해 살펴볼 계획이다.

과 필요성을 역설하는 증거이자 맹우의 동정심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이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승전보의 기록으로 구성된 남성영웅서사<sup>8</sup>와 달리, 여성영웅서사는 모성성이 드러난 가족사, 이성간의 사적 감정이 노출한 애정담 등 젠더적 요소들을 삽입하여 전쟁 이면의 이채로운 풍경을 재현하기도 한다. 여성은 전쟁 당시 이데올로기와 미학의 충돌, 거대담론과 개인담론의 길항관계를 조명하는 절호한 표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필자는 여성영웅에 주목하여 한국전쟁 기간 동안 북한의 대외홍보지 『새조선(新朝鮮)』의 번역 특징과 동기를 일별하고자 한다.

여성영웅이 나타난 일련의 소설에서 임순득의 「조옥희」와 황건의 「불타는 섬」은 남성영웅 못지않게 용맹하게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주체적인 여성영웅을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sup>9</sup> 또한 여성영웅을 초점인물로 설정하고 생사를 오가는 전쟁통에 그녀들의 내면세계를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두 소설은 공통점을 보인다. 그렇다면 침략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두 편의 여성영웅 희생담을 어떻게 번역했을까? 원작에 드러난 주체적인 여성상이 과연 번역을 통해 중국 독자에게 전달했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새조선(新朝鮮)』에서 실린 「조옥희」와 「불타는 섬」의 중국어 번역본을 원작과 면밀하게 대조함으로써 여성영웅이 나타난 변용과 전용 양상을 조명하고 그 배후의 번역 동기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대외선전을 목표로 한 북한 번역장에서 여성이 수행한 역할을 조명하고자 한다.

## 2 「조옥희」의 다시 쓰기: 여성성을 거세당한 여자 유격대원

여성작가 임순득이 창작한 「조옥희」는 북한 최초의 여성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조옥희의 일대기를 문학적으로 재현한 실화문학이다. 조옥희는 황해남도

8 이은자, 「북한 전시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27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63쪽.

9 여성영웅의 죽음을 서사화하는 희생담과 달리, 치유자 역할을 담당한 여성인물은 남성영웅과의 애정담을 전개하면서 해피엔딩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새조선(新朝鮮)』에 실린 애정담에 나타난 여성영웅의 번역 양상은 단독 논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출신으로 1947년 2월 조선로동당에 입당하였으며, 리여맹위원장을 거쳐 군여맹 위원장으로 일했고,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전선원호사업을 가담했다. 1950년 하반기 황해남도 지남산 인민유격대로 활동하다 경찰 임무 중 미군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0</sup> 1951년 3월 7일, 사망 4개월 만에 조옥희는 북한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첫 여성 ‘공화국 영웅’으로 제정되었다. 공화국영웅칭호 제정 후 배출된 첫 여성영웅으로서 조옥희는 문단으로부터도 즉각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1951년 6월 『문학예술』에 임순득이 창작한 소설 「조옥희」를 게재했다.<sup>11</sup> 6개월 후 이 소설은 『새조선』에 선정되어 러시아어,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되어 북한의 첫 여성 ‘공화국 영웅’은 소련, 중국과 영어권 나라 독자와 만나게 되었다.

「조옥희」는 총 5장으로 구성된 단편소설이다. 1-3장에서는 조옥희가 유격전을 가담하고 여성 동포를 구출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4-5장에서는 조옥희가 적군과 싸우다 체포되어 모진 고문당한 끝에 희생된 과정을 묘사했다. 『문학예술』에서 21쪽을 차지한 「조옥희」는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을 거쳐 5쪽에 불과한 콩트로 축약되었다. 그렇다면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삭제했을까? 원작에서 조옥희의 일대기는 부모, 남편과 아들을 회상한 개인 서사와 유격대원으로서 활동한 집단서사로 구성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조선(新朝鮮)』 번역주체는 ‘여성 영웅’의 집단서사를 집중적으로 번역한 반면 ‘영웅 여성’의 개인사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다시 썼다.

임순득은 해방 전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방 후 재북 시기까지 활발하게 여성 해방 의식을 표명한 여성작가다.<sup>12</sup> 전쟁 중에 창작된 「조옥희」도 임순득의 독특

10 ‘조옥희’, 『전자사전프로그램 『조선대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삼일정보센터, 2001-2005. 김은정, 「북한의 영웅서사, 60년의 간극: 『조옥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60호, 민족문화사학회, 2016, 485쪽 재인용.

11 조옥희를 원형으로 창작한 작품은 이북명의 중편소설 「조선의 딸」, 박팔양의 장편 서사시 『황해의 노래』(1957, 조선작가동맹출판사) 등이 있다. 『황해의 노래』는 1965년 왕문광(王文光)에 의하여 중국어로 번역되어 『黃海之歌(황해지가)』라는 제목으로 중국작가출판사(作家出版社)에서 출판된 바 있다.

12 이슬하, 「해방 후 임순득의 ‘여성해방 의식’과 북한의 ‘장르문학’ 창작: 오체르크와 뿌블리 찌스찌까에 대하여」, 『근대서지』 제26호, 근대서지학회, 2022, 740쪽.



한 여성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소설은 여주인공이 밤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아들을 그리워하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과거 회상을 통해 남편이 병사하고 옥희가 홀로 유복자를 출산하고 양육한 고통을 비롯한 개인사를 펼친다. 가족사진을 보고 조옥희는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은 애써 잊고 살아도 왔거니와 어린 것만은 다시 한 번 품에 안어보고 싶었다. 혈육에 대한 애정이 참기 괴로웠다.”라고 자백함으로써 강력한 모성애를 드러낸다. 이처럼 원작에서 조옥희가 전사, 당원 등 탈성화된 거대주체이기 전에 어머니의 딸이자 아들의 어머니로 등장한 여성주체로 등장한다. 그러나 『새조선(新朝鮮)』에서 조옥희의 여성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개인사는 대부분 삭제했다. 예컨대 원작 서두에서 조옥희의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펼쳐진 야경 장면과 내면 묘사는 『새조선(新朝鮮)』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중국어판 번역본은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1950년 10월 유격전을 전개하라는 명령을 받고 군당 대원들이 입산(入山) 준비를 착수하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이처럼 시점의 전환을 통해 『새조선(新朝鮮)』판 「조옥희」의 서사 중점은 ‘영웅 여성’으로부터 ‘여성 영웅’으로 이전된다. 또한 제2장에서 조옥희와 정치위원 김승용의 여러 차례의 대화를 통해 김승용이 옥희를 흠모하는 사적 감정을 은근히 노출했다. 조옥희는 김승용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임순득은 생생한 대화 묘사를 통해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성간의 감정이 움직이는 순간들을 포착하고 재현했다. 그러나 『새조선(新朝鮮)』에서 김승용이 나타난 대목을 전부 삭제하고 이 인물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남성 욕망의 대상이었던 옥희는 순전히 적개심과 전투의지로 무장된 탈성화된 영웅으로 정화(淨化)된다.

또한 제1장에서 유격전 명령이 내려지자 조옥희의 참전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조옥희는 유격대 가담을 간절히 요청했지만 군당위원장과 주변 남성 동무는 옥희의 요구를 기각했다.

(1-1) 『동무는 녀성의 몸이오. 또 어린것도 있고 하니 제발 안전한 후퇴를 하십시오.』

그 날 밤—1950년 10월 16일 밤. 벽성군 당에 모인 여러 동무들이 그렇게 말하였을 때, 옥희는 심한 모욕을 받았을 때처럼 얼굴이 파랗게 질

려 꼼짝도 않고 한동안 앉아 있었다.

—후퇴라니… 안전한 후퇴라니 나 혼자만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검고 움푹한 옥희의 큰 눈의 긴 속눈썹이 실내의 사람들에게 화살로써 쏘아보며 돌아갔다.

이윽고 그는 마음 속에 몇 번이고 곰색였던 음성으로 물었다.

『동무들! 그 건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가요? 혹은 제가 단지 아이 달린 몸이라 해서 거치장스러워서 인가요?』

『뭘 그리 따지듯이 그러니까? 어서 어머니 모시고 어린것과 떠나십시오.』

군당 위원장은 언제나 다름 없는 은후한 음성으로 그러나 서두르듯 말하였다. 다른 동무들도 시각을 다तो아 속히 떠나라는 재촉이었다.(밑줄-인용자)<sup>13</sup>

(1-2) 郡黨委員長皺着眉頭琢磨了一下，很慎重的對大家說：

「我想游擊這個工作不比別的工作，女同志們是搞不來的。尤其玉姬同志是有老母和幼兒，是更不便參加游擊隊的，最好請她早一點向後方撤退，大家的意見如何？」

郡黨委員長的話還沒有說完，大家便你一言我一語地嚷開了。這個說「這話對」，那個說「我早就這麼想」。玉姬聽了這些話，覺得好像給人罵了一頓，臉都氣青了，一時說不出話來。幾十對眼睛在親暱地注視着她。她那黑溜溜的兩雙大眼，向大家掃視了一下，便氣憤憤地說：

「你們這話從那裡說起，難道你們只准男子抗敵，不准女子抗敵麼？」

她的聲音顫顫抖抖，明明是帶了些怒氣的。如今坐在一旁吸着煙不說話的郡人民委員長把煙卷踩在腳底下踏了一踏，很和氣地對她說：

「玉姬同志，黨委員長同志的話是經過了慎重考慮的；他不是說不要你愛國不要你抗敵，不過是說每個人都有他最適當的工作和鬥爭形式罷了；要是不打游擊就不算愛國不算抗敵，那麼，難道後方的一切工作人員、老百姓們都不愛

---

13 임순득, 「조옥희」, 『문학예술』, 1951.6, 18쪽. 원본과 번역본의 불일치한 부분은 밑줄로 표기한다. 하동.

國不抗敵嗎？你到後方去，自然也有更適當的工作做的；共產主義者無論在什麼樣的情況下不許只看事情的一面，更不能單憑主觀去瞎干；我看你還是要多加一點考慮的好。」(밑줄-인용자)<sup>14</sup>

인용문(1-1)에서 볼 수 있듯이 조옥희의 참전 토론은 “동무는 녀성의 몸이요. 또 어린것도 있고 하니 제발 안전한 후퇴를 하십시오.”라는 군당위원장의 발화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대화를 주고받는 토론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하달한 명령에 더 가깝다. 이어서 조옥희는 참전 요청을 제기하자 군당위원장은 “뭘 그리 따지듯이 그러니까? 어서 어머니 모시고 어린것과 떠나십시오.”라고 강경하게 반박하고 주변 남성 동무도 “속히 떠나라고 재촉”했다. 이처럼 남녀 인물의 불균형한 대화를 통해 가부장적 위계질서로 구성된 군대에서 남성 헤게모니의 폭력성을 은밀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임순득의 젠더적 비판의식은 『새조선(新朝鮮)』의 역본에서 모두 삭제했다. 군당위원장의 독단적인 발화는 북한의 남성 군인이 여성 전우를 폄하하는 증거로 ‘오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에서 확인하듯이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이런 발화에 내포된 문제성과 위험성을 예민하게 반응하여 옥희와 남성 동무의 대화를 다시 썼다. 우선 군당위원장이 발화하기 전에 “눈살을 찌푸리며 궁리해 보더니 신중하게 말했

---

14 『새조선(新朝鮮)』의 중국어 역본을 한국어로 재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전략)군당위원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궁리해 보더니 신중하게 말했다.

“유격대는 다른 작업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고 여성 동무들은 해낼 수 없는 일이요. 특히 옥희 동무는 노모와 어린 아들이 있어 빨치산 활동이 더욱 불편하니 좀 더 일찍 후방으로 퇴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말을 하지 않던 군인민위원장이 담배꽂초를 발밑에 뱉으며 화기애애하게 말했다.

“옥희 동무, 당위원장 동무는 심사숙고한 끝에 한 말이요. 애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단지 사람마다 가장 적절한 업무와 투쟁 형식이 있을 뿐이요. 빨치산 하지 않으면 애국도 아니고 항적(抗敵)도 아니란 것이라면 후방 인민들은 모두 애국하지 않고 항적하지 않은 것인가요? 후방에 가면 더 적당한 업무를 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한 단면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주관(主觀)적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좀 더 많은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어.” 任淳得, 「趙玉姬」, 『新朝鮮』 1951.12, 48쪽.

다”라는 세부 묘사를 첨가하며, 발화가 끝나고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주변 동무의 의견을 물어보는 대목도 덧붙였다. 이렇듯 두 군데의 추가를 통해 군당위원장의 태도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부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그 뿐만이 아니다. 『새조선(新朝鮮)』에서 ‘군인민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추가함으로써 옥회의 참전을 거절한 원인을 부연 설명했다. 군인민위원장은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한 단면만을 보아서 안 되고 주관(主觀)적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옥회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했다. 여기서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공산주의자’라는 탈성화된 상위주체를 내세워서 여전사의 사상과 행위를 규율한다. 이는 민족, 국가, 공산주의로 표상된 가부장적 헤게모니가 여성영웅을 훈계하려는 증거이다. 이처럼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다양한 수법을 통해 원작에서 남성 동무의 독단적인 발화로 일으킨 젠더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남성 당지도자가 여성 부하를 배려하는 우애관계를 부각시킨다. 이에 따라 임순득이 비판하던 여성 ‘차별 대우’는 여성을 배려하는 ‘특별 우대’로 재구성된다.

이외에는 조옥희가 모진 고문에도 항복하지 않고 결국 총살당한 부분에 대해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첨가, 삭제, 서사 순서 바꾸기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조옥희의 숭고한 죽음의 가치를 최대한 부각시켰다. 우선, 고문 장면을 살펴보자. 북한의 전쟁서사에서 처녀, 소녀 등 여성의 학대 장면을 전시하는 것은 관습적인 묘사 방법이다.<sup>15</sup> 이는 여성의 육체를 통한 민족의 수난사를 강조하는 은유법이라 볼 수 있다.<sup>16</sup> 적군과 맞서 싸워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는 것은 남성이 영웅으로 거듭난 통과 의례라면, 몸에 가한 고문을 견디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것은 여성이 영웅으로 격상된 통과 의례다. 조옥희의 고문 장면에 대한 다시 쓰기는 세 군데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 원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형구(刑具)<sup>17</sup>들을 일일이 나열함으로써 ‘문명국가’로 자칭한 미국, 영국 군인의 비인간성

15 김미숙,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국가 담론과 젠더」, 『여/성이론』 제4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1, 118-135쪽.

16 전지니, 「전사(戰士)형 여성상으로 본 1950년대 북한연극의 젠더체계 - 「탄광사람들」(1951)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제82호, 한국연극학회, 2018, 132쪽.

17 “過不多時，許多刑具給拿來了，這裡頭有棍棒、解條、水壺、鉗子，也有火爐、烙线、錐

을 역설적으로 폭로했다. 둘째, 원작에서 옥희가 고문당하다가 인사불성에 빠진 환상을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고문 과정을 두 장면으로 나누어서 서술했다. 『새조선(新朝鮮)』의 번역본에서 서사 순서를 조정하여 미군이 조옥희를 고문한 끔찍한 장면을 연이어 번역하고 옥희의 환상을 맨 뒤로 재배치했다. 서사 순서의 도치(倒置)를 통해 여성의 육체가 훼손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전시함으로써 확대 장면의 자극적인 선동효과를 극대화한다. 셋째, 미군의 투항 권고를 듣고 조옥희는 “넌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 우리 조선 인민의 원수다! 나는 오늘 불행히도 붙잡혔으나 영광스럽게 죽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죽이면 죽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sup>18</sup>라는 원작에 없던 발화를 덧붙였다. 영웅다운 발화를 첨가함으로써 적군의 포악함과 조옥희의 숭고함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킨다. 끝까지 의지와 신념으로 저항하다 죽임을 당하는 숭고한 의리와 인격이 여성 영웅을 빛내는 진정한 아름다움인 것이다.<sup>19</sup> 다시 말하자면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세 군데의 다시 쓰기를 통해 여성영웅 조옥희의 수난과 불굴한 정신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독자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북한과 중국의 연대를 공고히 한다.

또한 조옥희가 감방에서 어린 동무의 죽음을 목도하고 희생을 각오하는 대목에서도 『새조선(新朝鮮)』은 원작과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다.

(2-1) 주검을 앞에 놓고 생각하는 모든 사실—그렇게 주검이란 힘든 줄은 몰랐다. 이미 주검을 각오한 사람에게 무섭고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으나 역시 사람은 그것을 초월한다는 게 힘든 일이다.

무슨 이리 술한 생각이 머리 속에 소용도리쳐오는 것일까.(…)

이제 그 모든 것은 없어져가고 있다.

네가 죽는 것이 두려웁지는 않다. 허나 내가 몸부림쳐 걸어온 길이 좀 더 보람차고 걸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나는 젊다. 아직도 三〇을 바라기

子、火剪等東西。”任淳得, 앞의 글, 51쪽.

18 玉姬聽了氣得臉色都發青了。她很嚴正的說：“你是美帝國主義的爪牙、是我們朝鮮人民的仇敵！我今天不幸落在你們的手裡，只有光榮犧牲的一條路，殺就殺，我是什麼都不說的。”任淳得, 위의 글, 51쪽.

19 김은정, 앞의 글, 485쪽.

엔 멀다.<sup>20</sup>

(2-2) 在已經覺悟了犧牲的革命志士的面前不會再有什麼可怕的东西了；可是「死」究竟是一件平常而又不平常的东西。人到了最後的瞬間，常常會想起種種有意義或沒有意義的事情。玉姬也不是一個超乎人間的存在，免不了對往事有一番回憶。(…)

現在這一幅美人奮鬥圖快要終結它的最後一筆了。

玉姬忽然叫起来了：「我死不得。我要活；祖國给我的任務，我還沒有完成；老百姓還呻吟在塗炭裡；我怎要能够死的呢！」她慢慢地閉住眼睛想了一下，又輕輕地睜開，呆呆地望着北方，很惋惜的自言自語：「啊！金日成同志！我真對不起您了；我没有完成您代表祖國和黨交給我们的光榮的任務，就這樣悄悄的離開人間了…」<sup>21</sup>

소년 인찬이 고문당하고 죽어간 장면을 보고 옥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순간적으로 드러내다가 과거에 대한 회상에 빠진다. 개인사(어머니에게 매를 맞은 어린 시절, 갓은 고초를 겪은 미망인의 삶)와 민족사(8·15광복, 입당, 당학교 졸업)로 구성된 회상이 마무리되자 옥희는 생에 대한 의욕이 다시 타올랐다. 원작에서 생의 의지를 일으킨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연유한 것인데, 하나는 더 보람차게 살지 못했던 과거 생활에 대한 안타까움, 다른 하나는 “나는 젊다. 아직도 三〇을 바라기엔 멀다”는 고백처럼 젊은 생명에 대한 미련이다. 이처럼 임순득은 조옥희의 죽음 각오를 한 인간이 더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망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옥희의 내면 독백을 인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

---

20 임순득, 앞의 책, 34-35쪽.

21 任淳得, 앞의 글, 52쪽.

(前略)옥희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나는 죽으면 안 된다. 나는 살아야 한다. 조국이 나에게 준 임무를 아직 완수하지 못했고 인민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는가!”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생각했다가 다시 살며시 떠서 멍하니 북쪽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말투로 혼잣말을 했다. “아! 김일성 동지!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조국과 당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이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로 다시 썼다. (2-2)에서 볼 수 있듯이 『새조선(新朝鮮)』에서 회상이 끝나자 옥희는 “조국이 나에게 준 임무를 아직 완수하지 못했고 인민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외쳤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책임감을 토로하고 나서 바로 수령을 호명하여 “김일성 동지!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이 조국과 당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이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라는 수령에 대한 고백으로 죽음의 각오에 마침표를 찍었다. 즉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옥희의 생에 대한 의욕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치환했다. 이에 따라 입순득이 그려낸 인간성이 넘치는 한 젊은 여성이 조국, 인민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무장된 ‘영웅’으로 변모되었다. 이는 남성 영웅서사에서 ‘인간’을 ‘신’으로 격상시키는 관습적인 수법을 차용한 것으로 본다.

이런 치환법은 조옥희의 유언을 번역하는 대목에서도 적용했다. 조옥희가 사형장에 나가서 비장한 유언을 고함하는 장면을 대조해 보면 아래와 같다.

(3-1) 어떤 창백한 청년이 눈을 수건으로 가리워 달라고 애걸하는 것을 보고 옥희는 두 눈에 충구처럼 불을 뿜으며 외쳤다.

“우리의 주검은 헛되지 않았다. 로동당원의 영예를 고수하라!”

“이년이!”

못놈의 손이 옥희의 찢어진 옷자락을 잡아채 전신주에 동여매 놓았다. 등 뒤에서 파도 소리가 짹- 하고 밀려왔다 밀려간다.

“탕!탕!”

총 소리는 계속해서 난다. 화약 냄새가 옥희의 타는 목을 더욱 불붙게 하였다.

“미제놈들아 저주와 멸망을 받으라! 나는 죽지만 나의 배후에는 수백만 우리 로동당원이 있다. 민주녀성이 있다. 인민군대가 있다. 청소한 공화국이 있다.”

길게 부르짖으며 휘두르던 옥희의 팔이 햇볕에 녹는 고드림처럼 툭 떨어졌다. 그러나 원썩놈들의 통은 솟구치는 핏발에 젖어 그 빛을 잃고 말았다. 떨어진 팔이 푸들푸들 뒤텔과 함께 옥희는 마지막 힘을 모아 심

장에 또 하나의 총탄을 맞으며 외쳤다.

“우리 수령 김장군 만세!”

그 소리에 뒤이어 잠시 조용했던 룡당포 파도 소리는 더욱 높아졌다.<sup>22</sup>

(3-2) 兇手們的射擊開始了，年輕勇士們一個又一個地犧牲了！在犧牲前的一瞬間，玉姬慷慨激昂地高呼：

「同志們！我們是光榮的，我們是為祖國和人民而死的。我們雖然死了，但我們的背後有金日成將軍，有由他領導的勞動黨、人民軍隊和三千萬人民，他們一定能夠替我們報仇雪恨。打倒美帝國主義！打倒李匪賣國賊！朝鮮勞動黨萬歲！」

她這最後的吼聲壓倒了敵人的槍聲，壓倒了他們的吵嚷和狂笑。

龍塘浦海洶湧澎湃著，像在憤怒地控訴人類公敵的滔天罪行。<sup>23</sup>

겉으로 보면 『새조선(新朝鮮)』의 역본이 훨씬 간결해졌으나 그 짧은 글에 내포된 희생의 가치가 한층 더 확대된다. 원작에서 조옥희는 “나는 죽지만 나의 배후에는 수백만 우리 로동당원이 있다. 민주녀성이 있다. 인민군대가 있다. 청소한 공화국이 있다.”라고 외치며 사형장에 나선다. 임순득은 ‘로동당’, ‘민주녀성’, ‘인민군대’, ‘공화국’이라는 순서로 여성영웅 조옥희의 배후에 뒷받침하는 상위주체를 서열화한다. 여기서 임순득은 ‘민주녀성’을 ‘로동당’ 뒤에 배치함으로써 당원과 군인, 남성과 여성이 함께 구성된 공화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민주녀성’을 삭제하고 조옥희의 배후에 서는 주체를 ‘로동당’, ‘인민군대’, ‘삼천만 인민’으로 재편했다. 또한 이 모든 주체 앞에서 ‘김일

---

22 임순득, 앞의 책, 36쪽.

23 任淳得, 앞의 글, 52쪽.

희자수들의 사격이 시작되고 젊은 용사들이 하나들씩 희생되었다! 죽음을 앞둔 순간 옥희는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다. “동지들! 우리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죽었습니다. 비록 죽지만 우리 뒤에는 김일성 장군과 로동당, 인민군, 그리고 삼천만 인민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우리의 원수를 갚고 원한을 풀어줄 것입니다. 미제국주의를 타도하라! 리승만 매국노를 타도하라! 조선로동당 만세!” 그녀의 마지막 고향소리는 적군의 총소리와 합성, 웃음을 삼켰다. 룡당포 파도는 마치 인류 공공의 적이 저지른 엄청난 죄상을 분노로 고발하듯이 출렁거리고 있다.



성 장군'을 내세워서 당, 군대와 인민은 모두 수령의 지도 아래로 포섭시켰다. 이런 다시 쓰기는 조옥희가 발휘한 영웅주의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여성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고양시킨 것이다. 환언하자면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조옥희의 유언을 통해 김일성을 중심으로 로동당, 군대와 인민이 함께 구성된 민족공동체를 중국 독자에게 제시하고자 했다. 이런 가부장적인 공동체에는 여성은 '삼천만 인민'의 일원일 뿐 독립적인 주체로 나서지 못한다. 이를 통해 대외선전을 목표로 한 북한의 번역장에서 여성이 수행한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조국과 인민의 딸, 김일성 장군의 전사, 즉 남성과 다르지 않는 탈성화된 주체로 거듭나서야 다른 나라의 독자와 만나는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3 「불타는 섬」의 다시 쓰기: 내면세계가 은폐된 여자 통신수

황건의 「불타는 섬」은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월미도를 사수하려던 인민군들의 이야기를 서사화한 단편소설이다.<sup>24</sup> 소설은 1950년 9월 12일 밤 김명희<sup>25</sup>를 포함한 3명의 여성 통신수가 월미도 이대훈 해안포 중대에 배속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동시대 작가가 흔히 사용한 전지적 시점과 달리, 황건은 김명희를 초점 인물로 설정하고 관찰자 시점에서 이대훈 중대장을 비롯한 해안포 대원들의 영

24 황건의 「불타는 섬」은 이대훈 해안포 중대의 이야기와 인천 우편국 여자 교환수 이야기를 합친 작품이다. 황건은 6·25전쟁기 '조국전선조사단성원'으로 응진, 의정부를 지나 낙동강 다부원 계선(界線)까지 갔다가 미군의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서울에 며칠 머무르면서 월미도에서 최후를 마친 '이대훈 해안포 중대원들의 인천 전투기록'을 읽는다. 이 전투기록을 6개월이 지나도록 작품화하지 못하다가 신문에서 읽은 '인천 우편국에서 싸운 여자 교환수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그는 이 전화교환수를 무전통신수로 바꾸고 월미도 해안포 중대에 옮겨놓아서 단편소설을 완성했다. 남원진, 「창조품과 기성품-황건의 「불타는 섬」의 창작과 개작에 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48집, 우리어문학회, 2014, 256-257쪽.

25 「불타는 섬」이 1959년 황건의 단편소설집 『목축기』에서 수록되었을 때 여자 통신수 '김명희'는 '안정희'로 개명되었다. 이후 판본은 모두 '안정희'로 개명했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새조선(新朝鮮)』의 중국어 번역본은 초판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김명희'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 황건, 『목축기』,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웅적인 모습을 재현한다. 김명희의 눈을 통해 펼쳐진 월미도 전투는 불사신처럼 싸운 해안포 영웅 군상을 그린 집단서사 및 이대훈과 김명희의 감정 세계를 그린 개인서사로 구성된다. 두 서사는 각각 다른 기능을 맡고 있는데, 집단서사는 인천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해안포 대원들의 영웅주의를 고양시키며 개인서사는 명희가 절박한 상황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동기를 섬세하게 묘사한다.

「불타는 섬」은 1952년 1월 20-21일 『로동신문』에 연재되었고<sup>26</sup> 같은 해 10월 동명소설집 『불타는 섬』에 수록되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발표 이후 「불타는 섬」은 월미도 전투를 바탕으로 한 ‘영웅주의’나 ‘대중적 영웅주의’를 형상화한 단편소설로 북한 문단에서 평가받은 바 있다.<sup>27</sup> 이후 50년대 중반, 70년대에 여러 번의 개작이 이루어지면서 2012년 『현대조선문학선집(60)』 단편소설집 『불타는 섬』에 재수록되었다. 북한의 다변한 정치 풍광 속에서 「불타는 섬」은 지속적으로 고평되며 “조국해방전쟁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sup>28</sup>으로 정전화된다.

북한의 공식적인 역사 서술에 따르면 “월미도를 수호하던 인민군 용사들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조국의 촛토를 사수하여 싸웠”고<sup>29</sup> “월미도 방어 전투는 인

26 1953년 「불타는 섬」은 류수인(柳樹人)에 의하여 중국어로 옮겨서 번역소설집 『불타는 섬(燃燒的月尾島)』에 수록하여 중국 신문에출판사(新文藝出版社)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이 소설집에서 황건의 「불타는 섬」과 「그가 돌아간 길」, 한봉식의 「어머니」, 김만선의 「사냥꾼」, 강형구의 「임진강」 등 5편 단편소설을 수록했다. 류수인은 1952년 1월 20-21일 『로동신문』에 실린 「불타는 섬」을 중국어로 옮겼음을 밝혔다. 柳樹人 輯譯, 『燃燒的月尾島』, 上海: 新文藝出版社, 1953, 27쪽.

27 한효는 황건의 「불타는 섬」에 대해서 ‘인민군 용사들의 영웅성’에 주목해서 평가하지만, 현재처럼 ‘조국해방전쟁기 소설문학의 가장 훌륭한 대표작’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한효, 「조선문학에 있어서 사회주의레알리즘의 발생조건과 그 발전에있어서의 제특징」, 『문학예술』 5-6, 1952. 6, 96면; 한효, 「우리 문학의 새로운 성과—一九五二(一九五二)의 오식」년 상반기에 발표된 작품들에 대하여, 『문학예술』 5-8, 1952. 8, 106면; 한효, 「자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조선문학(4)」, 『문학예술』 6-4, 1953. 4, 140면)

28 최광일, 「단편소설집 『불타는 섬』에 대하여」, 『불타는 섬』, 유항림(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2, 4쪽.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하)』,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8,

천상륙 기도를 지연시키고 아군의 전략적인 일시후퇴를 위한 귀중한 시간을 보장”한 전투로 기억되고 있다.<sup>30</sup> 이와 같은 중요한 전투를 서사화한 「불타는 섬」은 창작 9개월 후, 즉 1952년 10월 『새조선(新朝鮮)』에서 「燃燒著的孤島」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중국 독자와 만나게 되었다. 『새조선(新朝鮮)』에 실린 다른 소설과 마찬가지로,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불타는 섬」 역시 대폭 삭제와 다시 쓰기를 거쳐 원작과 상당히 다른 작품으로 변모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집단서사를 최대한 충실하게 번역함으로써 미군의 방대한 화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인민군의 투쟁 모습을 중국 독자에게 전달했다. 반면에 명희의 내면묘사와 남녀주인공의 대화로 이룬 개인서사는 생략, 삭제, 다시 쓰기 등을 거쳐 대폭 축소되었다.

「불타는 섬」에서 남녀주인공의 대화와 심리묘사를 통해 전패(戰敗)가 불가피한 경우에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심층적인 원인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여주인공 명희의 내면묘사를 통해 그녀는 굳이 죽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죽음의 각오를 다지게 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보여준다. 명희가 죽음을 각오한 동기는 아래 세 가지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 중대장 이대훈도 여전히 타는 듯한 열 오른 눈을 명희에게 돌렸으나 기쁨에 거북스레 눈을 껌벅이었다. 물 흐르듯 하던 땀이 아직 채 잦아들지 못한, 흠먼지에 얼룩이 진 얼굴이며, 너털이 난 셔츠며, 바지며, 그 사이로 비죽비죽 내어민 피 흘리는 살이며 명희는 중대의 모든 동무들과 함께 그에게 벌써부터 마음이 흠뻑 사로잡혀버렸다.

이들과 함께면 죽음의 두려움 외로움까지도 잊어버릴 것이었다.<sup>31</sup>

(1-2) 『새조선(新朝鮮)』: 삭제

---

197쪽. 남원진, 「황건의 「불타는 섬」 재론」, 『현대문학의 연구』 제51호, 현대문학연구회, 2013, 478쪽 재인용.

30 최광일, 앞의 글, 4쪽.

31 황건, 「불타는 섬」, 『‘북한문학’은 없다!: 북조선 대표 소설 선집』, 남원진 편, 경진출판, 2019, 222쪽.

(2-1) 동무에게 명령을 전달하기에 앞서 명희는 어쩌면 좋을지 모를 괴로운 생각에 잠겨버렸다. 싸움을 중간에 놓고 포중대 동무들과 헤어지겠거니는 명희는 조금도 생각 못했었다.

일종의 절망에 가까운 말 못할 쓰라림 없이 당장에 명희는 일들과 헤어질 일은 생각할 수 없었다. 그중에는 싸움 속에 마음도 몸도 불붙는가 싶은 대훈의 모습은 지울 길 없는 진한 영상으로 혈육과도 같이 가슴에 하나 그득해왔다. 그리고 명희는 벌써 오래전부터 하여온 생각이면서 지금이야 한 생각처럼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는 한 자기도 함께 남아 생명을 바치는 것은 자기의 가장 귀중한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생애에는 이보다 더 절박하고도 더 중대한 시간이 있지도 않았지만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 시간이야말로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이 결정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가슴 허비듯 했다. 아직도 걱정은 보고되어야 할 것이고 중대는 사령부와 연락되어야 할 것이고, 또 포중대 동무들의 싸움은 모든 부모 형제들에게 전하여져야 할 것이었다. 어려운 이 전국에 당하여 중대원 자신들의 비장한 각오도 그러려니와, 사령관도 또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비장한 마음 없이 지금 월미도에서 싸우는 이들을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sup>32</sup>

(2-2) 明姬接到了這個電報之後，不覺心裡糾著一個疙瘩，渾身就被深深的煩惱給鎖住了。在戰鬥最激烈的時候，就得和這裏的同志們分手，這是她夢裏也沒有想過的。

丟下剩不幾個的同志們到司令部去…還有那和藹可親的連長在這裏…這麼使得！<sup>33</sup>

---

32 황건, 앞의 책, 224쪽.

33 黃健, 「燃燒著的孤島」, 『新朝鮮』, 1952.10, 60쪽.

전보를 받자 명희는 마음이 몽클해지고 온몸이 깊은 번뇌에 잠겨버렸다. 전투가 가장 격렬할 시점에 동무들과 헤어지다니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몇 명 남지 않은 동무들을 남겨두고 사령부로 간다니… 또 상냥하고 친절한 중대장도 여기 계신데… 절대 안 돼!

(3-1) 대훈은 어성을 고치듯 갖추매없는 굵은 음성으로, “동무는 죽음이 무섭지 않소?”하고 물었다. 말을 하는 사이도 눈은 바다 속 놈들의 함정들을 겨누고 있었다.

명희도 한 곳을 지키며 말을 못하다가, “아니오.”하고 나직이 대답했다. 그러나 명희는 자기도 모를 흥분에 적이 창창한 목소리로, “그보다 두 저는…”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말은 무엇에 걸리듯 멈춰 서는 때도 있었다.

“그보다두 저는 중대장 동무며 중대 동무들과 알게 된 시일이 짧은 게 안타까운 생각을 하구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두렵거나 슬픈 생각이 없이… 어떻게 말루 표현할 수는 없어도 기쁘구 행복한 마음이에요. 참 말 저는 중대장 동무며 중대 동무들 때문에 지금은 제 일생의 그중 귀중한 시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욕하지 않으시겠지요?”<sup>34</sup>

(3-2) 過了一會兒，連長又說：“你不怕死嗎？”他的眼睛仍盯在海上的敵艦上。

明姬也瞭望着海的一角，停了一會才從嘴裡低低地擠出了一聲：“不！”可是停了一會，明姬卻興奮地以一種清脆的聲音接下去：“不但如此，而且我…”說到這裡，彷彿話被噎住了，但即刻又接了下去：“我…我是在想着連長同志和連上的同志們呢…真的，我一想到你們所做的事，我心裡就感到說不出的驕傲。雖然我用自己的話表現不出來我心窩裡的話，可是，我總覺得和你在一起戰鬥，是一個不平凡的事情，是我的幸福，的確是的。”<sup>35</sup>

---

34 황건, 앞의 책, 229쪽.

35 黃健, 앞의 글, 61쪽.

잠시 후 중대장은 다시 “죽음이 두렵지 않소”라고 묻고 눈은 여전히 바다 속 놈들의 함정들을 겨누고 있었다.

명희도 바다 한구석을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니요!”라고 속삭였다. 잠시 후 명희는 신이 나서 또렷한 목소리로 “그뿐만 아니라 저도…”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목이 막힌 듯이 멈추고 다시 말문을 열었다. “저는…저는 중대장 동지와 중대 동지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정말로 당신들이 한 일을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워요. 비록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당신과 함께 전투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고 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요.”

월미도에 도착한 후 명희는 해안포 대원들이 중대장 이대훈을 축으로 삼아 일사불란하게 전투를 준비한 모습을 목도했다. 인용문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투가 가열해질수록 명희는 “중대의 모든 동무들과 함께 그에게 벌써부터 마음이 흠뻑 사로잡혀버렸”으며 “이들과 함께면 죽음의 두려움과 외로움까지도 잊어버릴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다. 이대훈의 뛰어난 리더십과 동무들의 굳센 전투의지는 명희가 동무들과 같이 월미도를 사수하겠다는 심리적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새조선(新朝鮮)』의 역본에서 명희의 눈에 비친 이대훈의 모습과 이로 인한 심리의 변화를 모두 삭제했다. 이에 따라 명희가 전쟁의 공포를 극복하고 죽음의 의미를 각오한 최초의 계기가 은폐되고 첫 번째 서사적 공백을 남긴다.

중대원들은 이틀 동안 용맹하게 월미도를 지켰지만 중대에는 포 한문만 남고 포탄도 부족했다. 전세가 위급해지자 명령부에서 “무전수들은 전부 들어오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 명령을 받고 명희는 “어쩌면 좋을지 모를 괴로운 생각에 잠겨버렸다.” (2-1)에서 볼 수 있듯이 고민 끝에 명희는 중대 동무들과 함께 월미도를 사수하기로 결정했다. 원작에서 섬세한 심리묘사를 통해 명희가 굳이 죽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하게 된 내적 동기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우선, “절망에 가까운 말 못할 쓰라림” 속에서 명희의 머릿속에서 먼저 떠오른 것은 “싸움 속에 마음도 몸도 불붙는가 싶은 대훈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지울 길 없는 진한 영상”으로 명희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는 명희가 남기기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내적 동기로 작용한다. 이어서 명희는 생명을 바쳐 끝까지 싸우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의무”라고 여기며 동무들과 최후의 순간을 같이 보낸 시간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시간”이라고 자각했다. 이것은 개인적 동기를 넘어 ‘대중적 영웅주의’로 표상된 집단적 동기로 해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희는 사령부에 적정(敵情)을 보고하고 또 동무들의 싸운 모습을 동포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감을 상기했다. 이처럼 중대장에 대한 개인감정, 숭고한 헌신정신과 통신수로서의 사명감으로 인해 명희는 동무들과 같이 월미도를 사수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심리묘사를 통해 명희는 숭고한 헌신 정신으로 무장된 ‘대중적 영웅’으로 형상화되는 동시에 개인감정과 자유의지를 갖는 독립적인 여성 주체로 체현된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명희가 죽음을 선택한 동기는 소설의 주제가 담긴

핵심적인 내용인데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이 부분을 대폭 축소시켰다. (2-2)에서 볼 수 있듯이 『새조선(新朝鮮)』의 역본에서 사령부의 명령을 받고 명희는 “깊은 번뇌에 잠겨버리”다가 “몇 명 남지 않은 동무들을 남겨두고 사령부로 간다니… 또 상냥하고 친절한 중대장도 여기 계신데… 절대 안 돼!”라고 단호하게 결심을 내렸다. 즉 『새조선(新朝鮮)』에서 명희의 복잡한 내적 동기를 해안포 대원과 중대장을 상기해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간략히 요약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줄임표로 처리했다.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허전(空虛)’, ‘번뇌(煩惱)’ 등 부정적인 정서를 번역했지만 이런 공포를 극복해낸 과정을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과격한 삭제로 인해 명희의 내면세계는 은폐되어서 그녀가 죽음을 선택하게 된 심리적 동기도 불분명해진다. 선택의 결정적인 순간의 부재로 인해 두 번째 서사적 공백을 남겨 번역문은 서사의 개연성이 한층 더 떨어진다. 그 결과 명희는 자유의지로 갖는 여성주체부터 동기가 부재한 ‘도구적 인물’로 전락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새조선(新朝鮮)』에서 대훈에 대한 명희의 복잡한 정서들이 “화애가친(和藹可親)”이라는 표현으로 치환했다는 점이다. 중국어에서 “화애가친”이란 형용사는 상냥하고 친절하다는 뜻으로 손윗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다. 이런 다시 쓰기를 통해 명희의 눈에 비친 이대훈은 이성적 매력은 선보인 남성으로부터 부하를 배려하는 중대장, 후배를 보살피준 강부장적 이미지가 한층 강화된다.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원작에서 내포한 이성간의 애매한 감정을 의식해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본다. 사적 감정에 대한 다시 쓰기는 『새조선(新朝鮮)』 역본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데 남녀주인공의 감정이 깊어지는 과정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분명히 의식했을 텐데 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했을까? ‘대외선전’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이 대목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심리묘사의 내용이라기보다 세 가지 동기를 서술하는 순서에 있다고 본다. 원작에서 중대장에 대한 사적 감정이 먼저 서술되고 영웅주의와 사명감은 그 뒤로 배치한다. 이렇듯 영웅주의와 사명감 등 대의명분을 앞서가는 사적 감정은 명희가 죽음을 선택한 동기에 대한 ‘오독’을 일으킬 수 있다. 삶과 죽음이 갈리는 순간에, 명희는 한 개인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인가? 생사를 갈

이하는 동무들을 위해, 아니면 조국과 인민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것인가? 대외선전의 효과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이에 대한 해답은 (3-1)에서 명희와 대훈의 대화를 통해 다시 제시된다.

전투 마지막 날, 죽음이 다가올 때 명희는 “바로 이 시각에 기어코 나누어야 할 것 같은 이제껏 못한 서로의 마음속 그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간절한 충동을” 느껴 중대장과 대화를 시도한다. (3-1)에서 볼 수 있듯이 대훈은 지금이라도 돌아가라고 권하고 나서 “동무는 죽음이 무섭지 않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명희는 “중대장 동무며 중대 동무들과 알게 된 시일이 짧은 게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두렵거나 슬픈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중대장과 함께 싸운 것은 매우 “기쁘고 행복”하며 “귀중한 시간”이라고 토로했다. 명희에게 있어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 겪은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전쟁터에 남은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일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한다.<sup>36</sup> 여기서 명희의 대답은 (2-1)에서 밝힌 내적 동기를 대훈에게 털어놓고 말한 것이다. (3-2)에서 볼 수 있듯이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명희의 감성이 충만한 대답을 조심스럽게 다시 썼다. 우선, 원문에 없던 “저는 중대장과 대원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여기서 명희가 중대장뿐만 아니라 모든 동무들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서 명희는 동무들과 같이 싸운 것은 ‘자랑스럽’고 ‘특별’하며 ‘행복’한 일이라고 말했다. 원작에 비해 『새조선(新朝鮮)』의 역본에서는 명희와 대훈의 개인적인 연결을 약화시킨 반면 명희와 동무들 간의 연대감을 한층 강화시킨다. 이에 따라 명희는 대훈만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무들과의 연대감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그 동기의 중점이 이전된다.

명희의 고백을 듣고 대훈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조선(新朝鮮)』에서 명희의 고백이 달라진 만큼 대훈의 반응 역시 원작과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

36 이선미, 「북한소설 「불타는 섬」과 영화 「월미도」 비교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21호, 현대소설연구학회, 2004, 285쪽.



(4-1) 대훈은 입을 열지 못했다. 대훈은 명희의 일로 벌써부터 마음이 괴로웠다. 그의 마음이 무조건 고맙고 귀중하게 생각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되고 그것은 또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대훈은 얼마 후에야 말이 목에 걸리듯 거북스레 입을 열었다.

“지금이야 나는 동무의 일루 마음이 괴로워시오. 무어라구 해야 할지 동무에게 나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이오. …어쩐지 나는 동무를 10년두 전에 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오. 같이 있을 시간은 한정이 목전에 있지만 목숨을 바쳐 싸우려는 여기서 동무에 대한 생각까지 겹치게 된 것은 너무나 기이하게 생각되오. 물론 이것은 안타까우면서도 나에게는 기쁘고도 찬란한 일이오…그러나 나는 그만큼 또 동무가 괴롭게 생각되오.”

“저는 용서해주세요. 저를 참된 길로 그냥 채찍질 주세요.” 하고 명희는 자기 생각만 하듯 외우듯 말했다.<sup>37</sup>

(4-2) 連長說不出話來。因爲他看到他面前的這個少女雖然在自己的生命已臨最後一刻，但也沒有半点恐怖的神色，竟這麼泰然自若，所以他實任找不出一個適當的話來表達自己的心情。他只好反覆着三個字：“好同志，好同志！”<sup>38</sup>

(5-1) 기쁨에 서린 눈들은 더함없이 서로의 눈길을 찾았다.

날은 더욱 밝아오고 함포는 더 세차게 주위를 울렸다. 둘은 싸움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처럼 또 모든 이야기를 이 시각에 죄 털어놓아야 하는 사람들처럼 어렸을 적 자라던 이야기며 군데에서 공장에서 자나던 이야기를 시름없이 하여갔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정은 더 깊이 얽혀가는 듯했다.<sup>39</sup>

---

37 황건, 앞의 책, 229-230쪽.

38 黃健, 앞의 글, 61쪽.

중대장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눈앞에 있는 소녀가 최후의 순간에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이토록 태연자약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낼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그저 “좋은 동지, 좋은 동지”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39 황건, 앞의 책, 231-232쪽.

(5-2) 連長雖然跟她並沒有長久同過事，可是他很愛她，好像熱愛連上的每個正直的战士一樣；他非常歡喜這個姑娘，不願意叫她犧牲。<sup>40</sup>

(4-1)에서 볼 수 있듯이 명희의 직설적인 고백은 대훈의 심리적 동요를 일으켰다. 군인으로서 생사를 도외시하고 전투에 몰두해야 하지만 대훈은 “자기도 모르게 명희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이때부터 영웅주의로 무장되었던 대훈의 군센 내면은 금이 가게 된다. 그렇기에 대훈의 발화에서 명희로 인한 “괴로움”을 몇 번이나 언급했다. 영웅주의로 표상된 전쟁담론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 욕구와 충돌되어 영웅 내면의 균열을 일으킨 것이다. 대훈은 명희의 고백에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녀와 같이 있는 시간은 “기쁘고도 찬란한 일”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 이처럼 전쟁터에서 꽃핀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는 북한의 독자에게 심경을 울리는 ‘아름다운 낭만의 노래’<sup>41</sup>로 읽힌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다시 생각해 보자. 전쟁의 제삼자로서 중국 독자가 이런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적 감정은 불온한 변수이다. 자칫 하면 개인의 감정은 조국, 인민을 위한 대의명분을 압도하여 영웅주의의 숭고함을 상쇄하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에 보탬이 되는 범위에서만 사적 감정이 허가된다. 따라서 동시대 북한의 전쟁서사에서 공적인 전쟁담론과 사적인 감정은 서로 충돌된 대립항으로 설정하고 전자를 위해 후자를 포기하는 전쟁 영웅을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불타는 섬」에서 남녀주인공은 모두 사적 감정을 부인하지는 않다. 오히려 이를 받아들여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된다. 그러나 ‘대외선전’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감정은 전쟁의 승

40 黃健, 앞의 글, 61쪽.

중대장은 그녀와 오랫동안 함께 일한 적이 없지만 중대의 모든 정직한 전사들을 사랑하듯이 그녀를 매우 사랑하고 있다. 또 그는 이 아가씨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그녀의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

41 북한 비평가 엄호석은 「불타는 섬」이 “적들과 절박한 대치, 무수한 죽음의 희생을 강요하는 절망적 정황 속에서 굴복하지 않는 평범한 우리 청년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그로 말미암은 심오한 극적 체험에 대한 아름다운 낭만의 노래”라고 평가한 바 있다. 엄호석, 「조국해방전쟁 시기의 우리 문학」, 『해방후 10년간의 조선 문학』, 안함광 외,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209쪽.

리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이탈하여 영웅의 윤리적 합리성에 대한 ‘오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조선(新朝鮮)』에서 대훈이 괴로움을 극복하고 명희의 마음을 받아들인 내밀한 감정 변화를 모두 삭제해버렸다. 대신에 대훈은 “죽음을 앞두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명희의 태연한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감동 끝에 그는 “참 좋은 동지”라는 칭찬만 반복하고 말문이 막혀 버렸다. 이처럼 원작에서 섬세하게 펼쳐진 이성간의 교감과 그로 인해 일어난 심리적 동요는 『새조선(新朝鮮)』에서 모두 은폐되었다. 대훈의 눈에는 명희가 이성적 매력을 선보인 여성이 아닌 ‘소녀’와 ‘좋은 동지’로 변모된다. 이에 따라 원작에서 그려졌던 남녀주인공의 애매한 이성적 관계는 어른과 소녀, 중대장과 통신수라는 가부장적인 관계로 치환된다. 이를 통해 남성영웅 이대훈의 도덕적인 순결함을 강조한다.

자신의 마음을 확인한 후 대훈은 명희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고향 이야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나누면서 감정도 점차 실체화된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이름 못할 감정”은 “더 깊이 얽혀가는 애정”으로 승화된다. 황건은 「불타는 섬」이 ‘젊은이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숭고한 혁명정신, 고귀한 사랑’을 다룬 작품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sup>42</sup> 이에 따르면 남녀주인공이 전쟁터에서 맺어진 ‘애정’은 이성간의 ‘고귀한 사랑’, 그리고 생사를 같이하는 전우애로 구성된 복합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교묘한 다시 쓰기를 통해 남녀주인공의 ‘고귀한 사랑’을 여과시키고 순결한 전우애만 남겨둔다. (5-2)에서 나타나듯이 대훈은 해안포 모든 전사를 ‘사랑’하듯이 명희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는 이 아가씨(姑娘)를 ‘좋아해서(歡喜)’ 그녀의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 (4-2)에 나타난 ‘동지’와 ‘소녀’라는 호칭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선택한 ‘전사’와 ‘아가씨(姑娘)’라는 호칭은 동일한 서사적 기능을 맡고 있다. ‘동지’와 ‘전사’로서의 명희는 여성성을 거세당한 탈성화된 군인으로 변모되고 ‘소녀(少女)’와 ‘아가씨(姑娘)’로서의 명희는 손윗사람 대 아랫사람이라는 가부장식 서열화 관계로 포섭된다. 전자든 후자든 명희는 모두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제외시킨 셈

42 황건, 「영웅들의 고매한 정신세계를 그리고저- 단편소설 「불타는 섬」을 쓰던 기억」, 『청년문학』 130, 1967.2, 5-6쪽.

이다. 결국 『새조선(新朝鮮)』의 역본에서 남녀주인공의 ‘애정’은 중대장이 여자 통신수에 대한 전우애, 베테랑 구대원이 젊은 여전사에 대한 배려심으로 치환된다.

원작에서 남녀주인공의 마음이 가까워지면서 스킨십도 점점 친밀해진다. 명희와의 대화를 일단락 짓고 대훈은 “더 말은 없이 말 대신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명희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부상당한 대훈을 보고 명희는 “고페치는 마음 어찌할 길 없이 대훈의 손을 두 손으로 잡자 끝”고 “그 등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최후의 결별을 앞두고 전장으로 떠나기 전에 대훈은 “경련하듯 충동적인 동작으로 다시 오른팔을 들어 명희의 목을 안자 자기 얼굴을 명희의 얼굴에 부비듯 맞대었다.”<sup>43</sup> 이처럼 원작에서 스킨십에 대한 세부 묘사를 통해 남녀주인공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점점 깊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스킨십은 통신수와 중대장의 신분을 넘어 남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섹슈얼리티는 영웅성을 파괴할 수 있는 불온한 요소로 『새조선(新朝鮮)』의 역본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불타는 섬」에서 남녀주인공은 사적 감정이 고조된 정점에 명희의 입을 통해 김일성 장군을 호명한다. 이에 따라 개인 경험을 서술하던 남녀주인공의 대화는 다시 공적담론과 접목하게 된다.

(6-1) 문득 명희는 이야기를 바꿔,

“지금 우리들이 월미도에 이렇게 앉아 있는 줄을 장군께서는 아실까요?”

하고 웃으며 말했다. 대훈이 역시 웃음 어린 눈길을 치땀다 놓으며,

---

43 후세 「불타는 섬」의 개작 과정에서 남녀주인공 간의 스킨십도 점차 약화시키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2012년 소설집 『불타는 섬』에서 수록된 판본에서 “명희는 그 등에 얼굴을 묻었다”는 대목은 “그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로 개작했다. 또 “대훈은 경련하듯 충동적인 동작으로 다시 오른팔을 들어 명희의 목을 안자 자기 얼굴을 명희의 얼굴에 부비듯 맞대었다”라는 대목도 “대훈은 정희를 다시 한 번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핵 돌아서더니 전호밖으로 걸어나갔다”로 개작했다. 남녀주인공의 ‘고귀한 사랑’의 순결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작한 것으로 본다.

“알구 계실지두 모르지요.”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떻게요?”

“장군은 지금 지도 앞에서 월미도를 꼭 보구 계실 겁니다. 원수들이 더러운 발을 쳐드는 조국 땅 어디에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그 중에도 미더운 당원들이 총칼을 들고 서 있을 것을 사람들은 모든 정을 기울여 눈앞에 지키고 있을 겁니다.”

역시 이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조국은 말로는 표현도 할 수 없는 얼마나 큰 것인가. 명희는 이런 생각을 하며 더 말은 못했다.<sup>44</sup>

(6-2) 她又繼續說：“我知道，親愛的金將軍期待着我們出力。真的，他期待着我們要爲國爭光。儘管有什麼更艱苦，更危險的東西橫擋住我們的進路，我們也要忠實地執行他交給我們的任務。你不也是這樣的嗎，連長同志？”<sup>45</sup>

대훈과 명희의 ‘애정’이 북받쳐 절정에 달한 순간 김일성 장군이라는 거대주체가 개입하여 애매한 분위기를 중단시켰다. (6-1)에서 볼 수 있듯이 명희와 대훈의 대화에서 김일성 장군은 절대적인 중추로 등장한다.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김일성이 전지(全知)하는 천신처럼 지도 앞에서 월미도를 지키고 있다는 내용을 재삼 확인한다. 이어서 전국 인민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 특히 당원들의 투쟁한 모습을 “정을 기울여 눈앞에 지키고 있”는 상상적 화면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명희의 내면고백을 통해 “조국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밝혔다. 이처럼 원작에서 김일성, 인민과 조국 등 3대 주체를 병렬관계에 놓여 남녀주인공이 죽음을 각오하는 결정적인 동기로 제시한

---

44 황건, 앞의 책, 232쪽.

45 黃健, 앞의 글, 62쪽.

그녀는 이어 말했다. “친애하는 김 장군님께서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조국의 영광을 이룩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더 어렵고 위험한 난관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장군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중대장 동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다. 그러나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이에 만족하지 않은 모양이다. (6-2)에서 볼 수 있듯이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김일성 장군이 전쟁터에서 발휘한 막대한 역할을 일목요연하게 밝혔다. 조국을 위해 온힘을 바쳐야 한다는 당위성과 시급성은 김장군의 “기대”에서 연유한 것이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원동력도 김장군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이대훈, 김명희를 비롯한 해안포 대원들이 월미도를 끝까지 사수하는 원동력은 김일성 장군에 대한 충성심으로 수렴된 것이다. 이렇듯 김일성을 절대적인 중심으로 내세운 다시 쓰기를 통해 전쟁 당시 북한 대외선전의 주된 방향을 엿볼 수 있다. 남원진은 북한에서 출판된 16개 판본 「불타는 섬」을 대조함으로써 1950년부터 2000년대까지 「불타는 섬」은 ‘남녀의 애정 → 대중적 영웅주의 →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개작한 과정을 조명한 바 있다.<sup>46</sup>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실 『새조선(新朝鮮)』 역본에 나타난 다시쓰기의 양상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원작에 나타난 ‘남녀의 애정’을 최대한 여과시킨 반면 ‘대중적 영웅주의’를 부각시키며 결국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수렴한 여정이다. 작가 황건은 몇 십 년을 거쳐 비로소 완성한 개작은 1952년 10월 『새조선(新朝鮮)』의 역본에서 이미 완성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 대외선전을 목표로 한 번역장에서 수령중심의 노선이 국내 문학장보다 한걸음 더 앞서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불타는 섬」에서 내면의 욕망을 당당하게 발화하는 명희는 동시대 북한의 전쟁서사에서 보기 드문 주체적 여성 영웅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조선(新朝鮮)』의 대폭 삭제와 다시 쓰기를 거쳐 김명희의 복잡한 내면세계는 통째로 은폐되고 이에 따라 그녀는 속이 텅 빈 ‘기표’가 된다. 이런 기표에 영웅주의, 애국심,

46 남원진의 검토에 의하면 16개 판본이 있는데 이들 판본은 크게 1952년 판본, 1955년 판본, 1976년 판본으로 나눌 수 있다. 1950년대 중반 판본에서는 이전 판본의 여러 부분을 수정하는데, 여러 장면들의 묘사를 구체화하는 한편 애정 문제를 축소하고 동지애를 중심으로 한 영웅주의 또는 대중적 영웅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작된다. 그런 반면 유일사상체계가 성립된 후 1970년대 이후 판본은 남한이나 외국의 흔적을 지우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조국’과 같은 표현을 추가하여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북조선 중심의 역사를 창출한다. 남원진, 「창조품과 기성품 - 황건의 「불타는 섬」의 창작과 개작에 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48집, 우리어문학회, 2014, 272쪽.

수령에 대한 충심성 등 거대담론을 채워야만 대외선전에서 유효한 ‘기의’로 전용할 수 있다.

#### 4 나가며: 여성영웅의 ‘죽음’과 ‘환생’

이상에서 한국전쟁 기간 동안 북한의 대외홍보 기관지 중국어판 『새조선(新朝鮮)』에 선정된 여성영웅의 다시 쓰기 양상을 살펴보았다. 생략, 삭제 등 뺄셈법으로 남성 영웅의 무용담을 처리한 방식과 달리,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뺄셈법, 덧셈법과 치환법, 다시 쓰기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서 여성영웅을 재구성했다. 이런 재구성 과정을 통해 대외선전을 목표로 한 번역장에서 여성이 수행한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조옥희」에서 임순득은 영웅주의, 인간성과 비판의식을 겸비한 영웅여성을 그려냈다. 이런 여성 이미지는 중국 독자에게 연민과 공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민족국가 담론과 수령의 권위성을 역설하기에는 역부족하다. 따라서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다양한 수법을 통해 여성성이 넘치는 조옥희를 조국, 인민과 수령에 대한 사랑으로 무장된 탈성화된 주체로 다시 썼다. 이는 가부장적 민족국가 담론 속에서 여성 영웅이 재탄생된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성은 조국과 인민의 딸, 김일성 장군의 전사, 즉 남성과 다르지 않은 탈성화된 주체로 거듭나서야 외국 독자와 만날 수 있는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환언하자면 『새조선(新朝鮮)』의 다시 쓰기를 통해 재구성된 ‘조옥희’는 인민군 내부의 남녀평등을 선보이는 본보기, 적개심을 불러일으킨 수난자, 수령의 위대함과 절대적 권력을 입증하는 여전사, 더 나아가 북한과 중국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선전물’로 전용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 작가 임순득이 제시하려던 젠더적 색채가 지워지고 중국어판 「조옥희」는 가부장적 민족공동체를 수호하는 홍보물로 변모되었다.

황건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불타는 섬」은 “젊은이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숭고한 혁명정신, 고귀한 사랑”을 다룬 작품이다. 그러나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남녀주인공의 ‘고귀한 사랑’을 표출한 내용을 깨끗이 여과시켜서 월미도 해안포 대원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숭고한 혁명정신’만을 중국 독자에게 전달

했다. 「불타는 섬」에서 대외선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명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냐 하는 문제다. 남녀주인공의 사적 감정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명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녀 영웅의 사적 감정은 수령, 조국, 인민을 압도한 불안한 요소로 ‘오독’하며 북한 인민군의 영웅주의를 먹칠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남녀주인공의 애매한 대화와 스킨십을 교묘하게 다시 써서 남녀 영웅 간의 “깊이 얽혀가는 애정”을 순수한 전우애로 치환했다. 이에 따라 명희의 풍부한 내면세계와 주체적인 자각은 모두 은폐되어 그녀는 중대장 이대훈의 영웅성을 방증하는 ‘도구적 인물’로 전락되었다.

요컨대 임순득의 「조옥희」와 황건의 「불타는 섬」은 전쟁 기간 동안 북한 여성영웅의 죽음을 재현한 희생담이다. 여성 유격대원 조옥희와 통신수 김명희는 비록 소설 속에서는 생을 마쳤지만,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을 통해 중국 독자와 만나게 되고 중국 문학장에서 다시 ‘환생’하게 된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도 남성 못지않게 적군과 맞서 싸우는 용맹하고 유능한 북한 여성은 국경을 넘어 중국 독자에게 빛나는 여성 영웅으로 기억된다. 예컨대 1950년대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에서 조옥희 관련 기사를 수차례 게재하여 그녀를 “조국을 수호하는 영웅”으로 호명하여 중국 민중이 ‘항미원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고무했다.<sup>47</sup> 이처럼 번역을 통해 중국 독자와 만나게 된 여성영웅은 북한과 중국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번역을 통해 이루어진 여성 영웅의 ‘환생’에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다. 조옥희는 『새조선(新朝鮮)』의 다시 쓰기를 거쳐 여성성이 넘치는 한 인간으로부터 조국, 인민과 수령에 대한 사랑으로 무장된 탈성화된 주체로 변신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성이 충만하고 개인의지를 갖는 여자 통신수 김명희는 『새조선(新朝鮮)』의 다시 쓰기를 통해 내면이 부재한 텅 빈 ‘기표’로 전락된다. 이런 기표

47 「英勇頑強的朝鮮姐妹們」, 『人民日報』, 1952.3.9.; 「朝鮮人民的英勇鬥爭」, 『人民日報』, 1953.6.26.; 「我見到了劉胡蘭的母親」, 『人民日報』, 1954.4.18.; 「信川人民的仇恨和歡笑」, 『人民日報』, 1961.8.13.



에 영웅주의, 애국심, 수령에 대한 충성심 등 거대담론을 채워야만 대외선전에서 유효한 ‘기의’로 전용된다. 환언하자면, 여성영웅은 여성적 자의식을 버리고 집단적 주체, 즉 탈성화된 주체에 합류되어야만 비로소 자국 문학장에서 대외 번역장으로 진입하는 입장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외선전(對外宣傳)을 목표로 한 북한의 번역장에 깔려있는 가부장적 색채를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新朝鮮』, 『문학예술』, 『人民日報』  
유항림, 『불타는 섬』,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2.  
임순득, 「조옥희」, 『문학예술』, 1951.6  
황건, 『불타는 섬』, 평양: 문화전선사, 1952.  
——, 『목축기』,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任淳得, 「趙玉姬」, 『新朝鮮』, 1951.12  
黃健, 「燃燒著的孤島」, 『新朝鮮』, 1952.10

### 단행본

- 남원진 편, 『‘북한문학’은 없다! : 북조선 대표 소설 선집』, 경진출판, 2019, 216-240쪽.  
안함광 외, 『해방후 10년간의 조선 문학』,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209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하)』, 평양: 과학원출판사, 1958, 197쪽.  
金日成, 『金日成著作集6(1950.6-1951.12)』, 平壤: 外文出版社, 1981, 349-356쪽.  
柳樹人 輯譯, 『燃燒的月尾島』, 上海: 新文藝出版社, 1953, 1-27쪽.

### 논문

- 김미숙,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국가 담론과 젠더」, 『여/성이론』 제4호, 여

- 성문화이론연구소, 2001, 118-135쪽.
- 김은정, 「북한의 영웅서사, 60년의 간극: 『조옥희』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60호, 민족문학사학회, 2016, 475-501쪽.
- 남원진, 「황건의 「불타는 섬」 재론」, 『현대문학의 연구』 제51호, 현대문학연구회, 2013, 471-510쪽.
- \_\_\_\_\_, 「창조품과 기성품 - 황건의 「불타는 섬」의 창작과 개작에 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48집, 우리어문학회, 2014, 247-288쪽.
- 등천, 「총성 없는 전쟁터: 1950년대 중국에서의 북한문학 번역장」, 『민족문학사연구』 제74호, 민족문학사학회, 2020, 379-412쪽.
- \_\_\_\_\_,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대(對)중국 번역 기획: 북한의 대외 홍보 기관지 『새조선(新朝鮮)』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79호, 현대문학연구회, 2023, 163-200쪽.
- 이선미, 「북한소설 「불타는 섬」과 영화 「월미도」 비교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21호, 현대소설연구학회, 2004, 275-298쪽.
- 이슬하, 「해방 후 임순득의 ‘여성해방 의식’과 북한의 ‘장르문학’ 창작: 오체르크와 뿌블리찌스찌까에 대하여」, 『근대서지』 제26호, 근대서지학회, 2022, 747-772쪽.
- 이은자, 「북한 전사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27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27-51쪽.
- 전지니, 「전사(戰士)형 여성상으로 본 1950년대 북한연극의 젠더체계 - 「탄광 사람들」(1951)을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제82호, 한국연극학회, 2018, 68-105쪽.

## Abstract

Translation as Propaganda, Women as Battlefield  
 - Focusing on translation of Heroine narrative published on the Propaganda Magazine  
**New Korea**

DENG Qian

During the Korean War, a series of novels were translated through North Korea's external publicity magazine *New Korean*, showing Chinese readers images of heroes fighting devotedly on the battlefield. Among these, Heroine occupy a unique position as a symbol that cleverly reveals the conflict between ideology and aesthetics and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grand and individual discourses. This study selected Lim Sun-deuk's *Cho Ok-hee* and Hwang Geon's *The Burning Island* as research subjects and examined the adaptation and appropriation of female characters. *Cho Ok-hee*, created by female writer Im Sun-deuk, is a novel that tells the story of how Jo Ok-hee was captured, tortured, and shot while working as a guerrilla member through personal and group narratives. Through the rewriting of *New Korea*, *Jo Ok-hee* was transformed from a human being overflowing with femininity into a desexualized subject armed with love for her country, people, and leader. *Burning Island*, created by male writer Hwang Geon, is a novel that narrates the story of the coastal artillery company commander Lee Dae-hoon and the female operator Kim Myeong-hee spending their final time together during the battle to defend Wolmido. In *New Korea* the content expressing the 'noble love' of the male and female protagonists was clearly filtered out, and only the heroic images of the Wolmido Coastal Artillery crew, filled with 'fiery patriotism' and 'noble revolutionary spirit', were conveyed to Chinese readers.

*Cho Ok-hee* and *Burning Island* are stories of sacrifice that recreate the death of Heroine. Although Jo Ok-hee and Kim Myeong-hee passed away in the text, through the translation of *New Korea*, Heroine from North Korean meet Chinese readers and are 'reincarnated' again in the Chinese literature. However, this 'reincarnation' comes with additional conditions. Only by abandoning the individual ego and joining the collective subject, that is, the desexualized subject, can the female hero obtain the ticket to enter the field of translation aimed at external propaganda. Through this, we can confirm the role that Heroine played in the grand discourse of external propaganda.

Key words: *New Korea*, Korean War, translation, heroine, *Cho Ok-hee*, *Burning Island*

논문제출 / 2023. 11. 16.

논문접수 / 2023. 11. 23.

게재확정 / 2023. 12. 08.